

“신기술보급사업 시범사업 확대해야”

농진청, 농업생산성 관행농가 대비 24.5% 증가 농가소득 32.1% 늘어

농촌진흥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한 신기술을 농가 시범사업으로 발굴해 보급한 결과, 농업생산성과 농가소득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시범사업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기술 투입을 통한 농업생산성은 관행농가 대비 24.5% 높아졌으며 농가소득은 32.1% 늘었다.

“신기술보급사업”은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국고보조를 통해 연간 140여종 900여개소에서 추진되고 있다.

기술투입효과가 입증된 과제는 중앙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해 국내농

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기술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신기술보급사업 성과분석 연구보고서 결과에 의하면 완료과제(38종)에 대한 총 경제적 효과(편익)은 약 1,600억 원으로 분석됐다.

대표적인 신기술보급사업 확산사례로는 2010년~2012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과수 우산식 지주재배 실천면적은 지난해 6,178ha로 늘었으며, 토마토 어린묘 2줄기 재배는 2013년~2015년 시범사업을 통해 지난해 540ha로 확대된 기술보급 성과를 보이고 있다.

“신기술보급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대표적인 기술보급 사업으로써 최신기술을 현장에 신속히 확산하기 위해 신규과제를 해마다 선정하고 있다. 세부 사업별 농가소득 증대 기여도, 과제의 시급성 및 중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파급효과 등을 중점 검토해 우수한 과제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선정체계를 더욱 고도화해 현장실증이 완료된 12과제를 대상으로 사전 경제성 분석을 실시했고, 2018년도에 우선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가계대출 옥죄기 서민가계 비상

대출 증가율 한 자릿수 이내로 유도 등... 대출 총량 관리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옥죄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 여파로 국내 시중금리가 상승기에 진입하자 전 금융권의 대출 증가율을 한 자릿수 이내로 유도하고 가계부채가 급증한 금융사에 대한 현장점검에 돌입하는 등 사실상의 대출 총량 관리를 강화하고 나섰다.

금융당국이 은행은 물론 제2금융권 가계대출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서민가계의 ‘돈 구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20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2015년 14.0%, 2016년 10.8% 등으로 두 자릿수를 유지했다.

올해 들어 은행권 대출 증가율은 1월 585억원, 2월 2조9000억원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하는 듯 하다가 다시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올해 은행권 가계부채 증가율을 6%대에서 관리하고 2018년에는 경상 성장을 수준으로 낮춰 연착륙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도 한 자릿수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호금융권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다소 빠르다”며 “가계대출을 과도하게 늘리는 것은 차주와 해당 금융회사의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선제적인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상호금융을 감독하는 정부의 주무부처와 중앙회는 소관 조합·금고별 면담을 통해 가계대출이 과도하게 증가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전북농협, 소통과 상생의 한마당 홈커밍데이 행사

전북농협은 20일 퇴직한 선배 농협인과의 유대강화를 통한 전북농협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소통과 상생의 한마당 홈커밍데이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30~40년 농협에 근무

하다 퇴직한 선배 농협인 150여명과 후배 농협인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농협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행사는 농협의 사업과 비전을 담은 홍보영상을 시청하고, 올해 전북농협 중점 추진사업 등을 설명하는 시간이

로 진행됐으며, 오찬 간담회를 끝으로 마무리 됐다.

한편, 전북농협은 홈커밍데이 행사를 2011년부터 7년 동안 매년 개최해 퇴직 선배들의 조언을 구하고 있으며,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을 만들기 위해 각자의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농어촌공 전북, 농경지 배수개선사업 492억원 투입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는 상습침수 농경지에 배수시설을 설치해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안전영농을 도모하는 배수개선사업에 492억원을 투입해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배수개선사업은 호우발생시 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농경지에 배수장, 배

수로 등 배수시설을 설치해 농작물 침수피해를 방지하고 원예작물 등 다양한 작물재배 여건을 구축해 농업인들의 경제적 영농을 마련하는 것이다.

도내에 현재 22지구 49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7,372ha의 농경지에 안정영농을 지원하도록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준공을 앞둔 남원 금지지구, 김제 백곡·부량·신원·상광지구, 군산 화현1지구는 현재 공정을 89%로 추진 중이며, 신규로 착공하는 지구는 남원 방동지구, 부안 금관지구, 익산 내촌지구, 정읍 화호지구로 6월~8월 중 착공할 예정이다.

JB 리치 100 정기예금 출시

전북은행, 만 50세 이상 시니어 고객 대상

전북은행은 은퇴(예정)자 노후설계 자금관리 지원을 위해 만 50세 이상 시니어 고객 대상 우대상품인 ‘JB 리치 100 정기예금’을 21일 출시한다.

‘JB 리치 100 정기예금’의 최소 가입금액은 300만원 이상으로 고객의 자금관리 선호에 따라 가입 후 최장 10년 이내에서 원금과 이자를 분할 수령하는 즉시연금형과 최장 5년 이내에서 연단위로 원금이 자동 재예치 되는 회전형(만기일시이자 지급식, 월이자 지급식) 2종으로 구성됐다.

또한 매 1년 단위로 시장 실세금리 변동에 따라 기본금리가 재조정돼 고객입장에서 금리상승기에 장기가입에도 불구하고 금리 리스크

를 줄일 수 있으며 회전형 상품의 경우 1년 단위 자동 재예치로 만기에 은행을 방문해 재가입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기본적인 거래실적에 따라 최대 0.2%의 우대금리가 제공되고,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분할해지 기능으로 고객의 이용편의를 높였고 전 금융기관 합산 5,000만원 범위내에서 연도별 비과세 가입 대상 연령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향후에도 시니어 고객 금융권의 향상을 위한 다양한 상품 확대 및 각종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JB 리치 100 정기예금”의 최소 가입금액은 300만원 이상으로 고객의 자금관리 선호에 따라 가입 후 최장 10년 이내에서 원금과 이자를 분할 수령하는 즉시연금형과 최장 5년 이내에서 연단위로 원금이 자동 재예치 되는 회전형(만기일시이자 지급식, 월이자 지급식) 2종으로 구성됐다.

또한 매 1년 단위로 시장 실세금리 변동에 따라 기본금리가 재조정돼 고객입장에서 금리상승기에 장기가입에도 불구하고 금리 리스크

전북 아프리카 무역사절단 24일까지 추가모집

전북도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북본부

전북도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북본부는 국내 중소기업의 아프리카시장 관료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4월 17일부터 4월 27일까지 9박11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전북 아프리카 무역사절단을 24일까지 추가모집한다.

참가인원에게는 현지 바이어 발굴비, 상담장 임차료 및 통역비 등이 무료로 지원된다.

또한 항공료의 50%(1인당 1인 한도)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전북 아프리카 무역사절단은 요하네스버그(남아공), 나이로비(케냐), 다르에스살람(탄자니아)을 방문해 현지 시장조사 및 바이어와의 미팅을 통한 시장개척 기회를 갖는다.

파견규모는 10개기업 내외이며, 참가기업은 현지 코트라 무역관의 사전 시장성 검토 등을 거쳐 현지진출 유망기업을 선정하여 파견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전북 수출지원관리시스템 (http://jtrade.jeonbuk.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며, 문의는 전북 중기청 수출지원센터 중진공 현장지원단(063-210-6466~7)으로 하면 된다.

“JB 리치 100 정기예금”의 최소 가입금액은 300만원 이상으로 고객의 자금관리 선호에 따라 가입 후 최장 10년 이내에서 원금과 이자를 분할 수령하는 즉시연금형과 최장 5년 이내에서 연단위로 원금이 자동 재예치 되는 회전형(만기일시이자 지급식, 월이자 지급식) 2종으로 구성됐다.

또한 매 1년 단위로 시장 실세금리 변동에 따라 기본금리가 재조정돼 고객입장에서 금리상승기에 장기가입에도 불구하고 금리 리스크

LH전북본부, 마이홈 상담센터 이전 개소

LH전북본부, 마이홈 상담센터 이전 개소

LH전북본부는 20일 전주권 마이홈 상담센터를 지역본부 1층으로 확장·이전하고 본격적인 상담업무 시작한다.

“마이홈”은 정부의 주거지원정책을 국민들이 쉽고, 종합적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구축한 원스톱 주거지원 안내 시스템을 말한다.

LH 전북본부 1층에 위치한 전주권 마이홈 상담센터는 주거복지 전문상담사 3인과 금융상담사 1인이 상주하면서 상담센터를 방문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뉴스테이, 주거급여 및 주택기금대출 등 정부의 주거지원정책에 대한 통합 안

내 서비스와 함께 개인별 맞춤 상담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전주시 등 지자체 및 주거복지단체와 연계해 주거복지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주민센터, 사회복지관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거복지 서비스’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김원희 전북본부장은 “마이홈 상담센터를 중심으로 주거복지 정보공유 체계 구축, 주거복지기관 협업·연계 사업 발굴 등을 수행하는 ‘주거복지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www.jmaeil.com | 구독문의 288-9700